

지성사상의 대학과 교수상

2

교양과 교양인의 세기속의
대학과 아카데미(상)

이 광 주
인제대 사학과 교수

1. 머리말

유럽 지성사에 있어 15세기 르네상스 이래 18세기까지 이르는 시기는 교양과 교양인의 세기라고 할 것이다. 그 교양과 교양인의 원형은 이탈리아 르네상스시대의 '르네상스적' 휴머니스트였다.

그들 휴머니스트들은 인간과 삶에 대한 파토스적이며 심미주의적 애정으로 하여 단순한 학식자가 아닐 뿐더러 전문성을 내세우는 학교의 사변적인 학문과는 의식적으로 거리를 두었다. '전인적인 德'의 이상적 실현을 바라는 교양의 본질로 하

지성사상의 대학과 교수상

1. 중세의 방랑교사와 그 후예들
2. 교양과 교양인의 세기속의 대학과 아카데미(상, 하)
3. 이데올로기시대의 개막과 대학
4. 베를린 대학과 아카데미쿠스
5. 다원적 대학과 교수의 천의 얼굴

여 그것은 필연적이었다고 할 것이다. 그리하여 교양과 교양인 형성의 터전은 대학이 아닌

살롱이요 공공의 장소가 되었다.

교양과 교양인의 이상은 이탈리아 르네상스에 있어서는 '보편적 인간'이요 궁정사회와 귀족문화가 발달한 17세기 프랑스에서는 '오네툼'(사교인)이며, 그리고 영국에서는 '젠틀맨'이었다.

보편적 인간이건 사교인이건 신사이건 이들에게 공통적인 것은 그것이 대학이나 서재가 아닌 살롱이나 클럽 등 보다 열린 공공의 터전에서 형성되었다는 사실이다.

그리하여 교양과 교양인의 세기는 대학의 침체기로서 기록되며 뛰어난 학식자들은 아카데미에 모였다.

2. 르네상스 휴머니스트와 교양

이탈리아 르네상스운동은 그 무대가 메디치가의 본거요, 이름도 아름다운 ‘꽃의 서울’ 피렌체에 옮겨지면서 더욱 살롱적인 성격이 짙어졌다.

때마침 이탈리아는 공화주의적 피렌체와 帝政的인 밀라노의 두 데립된 세력에 의해 나누어져 있었다. 그런데 피렌체와 밀라노는 저마다 이탈리아에서의 宗家的 정통성을 주장하여 그 근거 내지 系譜를 고문서·고기록에서 찾는 데 부심하였다. 이러한 움직임은 고전에 대한 지배계층의 관심을 높이는 한편 고전 연구자인 휴머니스트들의 사회적 평가를 드높이는 결과를 낳았다.

카톨릭적 중세의 종말은 바로 스콜라학의 황혼을 의미하였으며 14, 15세기 르네상스의 태동, 즉 고대 그리스-로마의 고전에 대한 지식사회의 새로운 취향과 정열은 날로 확산되어 파리의 신학자들까지도 스콜라학을 외면하고 이교적인 ‘좋은 학문’(bonae literae), 즉 人文 諸學에 끌리었다. 그뿐만 아니라 새로운 지적 움직임은 삶의 새 양식을, 부르크하르트의 표현에 의하면 ‘세계와 인간을 세

로이 발견하고자’ 꿈꾸었으니 이 모든 것은 휴머니스트의 본질과 깊이 관련되었다고 할 것이다.

휴머니스트, 그들은 누구였는가. 그들은 우선 고전 연구자이다. 그러나 그들의 고전연구는 중세 대학에서의 어학 중심의 그것과는 성격을 달리하였다. 페트라르카 이래 에라스무스에 이르기까지 뛰어난 휴머니스트들은 문학적 비전이 결여된 대학의 학풍을 혐오하였다.

그들의 본질인 인간과 삶에 대한 애정어린 관심으로 하여 휴머니스트들은 파토스적인 인간이며 심미주의자이다. 그리하여 그들은 단순한 학식자가 아닐 뿐더러 학교의 학문과는 거리가 멀다. 그리하여 그들은 대학이 아닌 살롱적인 아카데미에 모였다. 메디치가의 코시모는 휴머니스트들을 위해 유럽 최초의 아카데미, ‘아카데미아 플라토니카’(academia platonica)를 피렌체에 세웠다.

유럽에서 ‘학문’과 ‘학문적 인간’(academicus)의 관념은 헬레니즘시대(B.C.4~1)의 소산이며 최초의 학자는 아리스토텔레스이다. 플라톤은 이 뛰어난 제자를 다소 경멸이 섞인 심정으로 대하였다고 한다.

그리스적 理想은, 全人的이며, 모든 ‘영혼의 德’의 이상적 구현을 바라는 ‘德’(aretê)을 지향하

는’ 교양(paideia)의 완벽한 실현이었다. 그리하여 그리스에서는 뛰어난 사람으로서 존경받으려면 거의 모든 것에서 두각을 나타내야 했다. 훌륭한 웅변가는 정치가요 음악가인 동시에 격투 기능자이기도 하였다. 하나만의 技藝에 뛰어나고, 그것이 설령 학문일지라도, 그것을 業으로 삼는 전문가는 ‘속물’로서 경멸받았다.

그런데 아리스토텔레스를 최고의 스승으로서 받든 중세의 대학은 그를 따라서 지식을 類別하고 전문화하였으며 그의 저작을 몇 세기를 통해 根本으로 삼았을 뿐만 아니라 자유로운 知的 放浪者들을 類型化하고 급기야 위계 질서(미기스테르, 독토르 혹은 강사, 연구원, 교수) 속에 몰아 넣고 또한 묶어 놓았다. 이탈리아 르네상스의, 문화사상 유례없는 그 풍요함과 찬란함은 그것이, 각 분야의 특수한 전문가들에 의한 것이 아닌, 자기 속에 일종의 ‘大學’을, 아니 그 이상의 것을 구현한 ‘보편적 인간’(Homo Universale)들에 의해 창출되었다는 사실에 있다. 르네상스 시대의 이상적 인간상은 바로 이 보편적 인간이었으며 그 전형적 인물을 우리들은 단테와 레오나르도 다빈치에서 찾을 수 있다고 할 것이다. 단테는 시인인 동시에 고전학자요, 피렌체의 행정장관과

외교관을 역임하는 한편 騎士로서 싸움터에서 공을 세우는가 하면 亡命客이기도 하였다. 다빈치가 화가·조각가·건축가인 동시에 천문학·물리학·지리학·토목공학·造兵學·기계학·식물학에도 조예가 깊은 보편적 인간, 萬能의 인간임을 널리 알려진 바 있다. 당시에 '재능'(Virtu)이란 다양성과 전적으로 동일한 의미였다. 타락한 문화에만 전문가가 출현한다고 믿은 점에 있어서도 르네상스 시대 사람들은 그리스 사람들의 후예였다. 사실 학문과 학문적 인간을 탄생시킨 헬레니즘 문화는 그리스 문화의 亞流가 아니었는가.

그런데 보편적 인간, 만능의 위인을 이상으로 지향하는 휴머니스트의 교양은 서재 속에서 연마되는 것이 아니라 공공의 세계에서 구현되는 것으로 확신되었다. 이것은 마치 '덕을 지향하는' 교양이 '공인'(politikos) 즉 '완전한 시민'이 됨으로써 구현되고 완성된다는 그리스적 인식과 일치하는 것이었다.

르네상스 휴머니즘의 본질을 조성한 첫번째 요소는 도시국가에서의 시민사회의 발전이었으며 피렌체가 그 중심이었음은 바로 그것이 당대에 시민정신이 가장 활발하게 전개된 데서 유래된다. 휴머니스트의 대다수는 도시 중산계층의 출신이었다.

그러나 르네상스의 시민사회는 그 발전 속에서 고대 그리스의 폴리스와도 같이, 귀족과 시민이 '시민'이라는 개념 속에서 융합되고 있었다. 그리고 이 융합의 매개가 된 것은 바로 교양과 그리고 치열한 자유의 정신이었다.

피렌체를 찾는 나그네는 아카데미아 미술관에서 미켈란젤로의 걸작 다비드 상 앞에서 잠시 말을 잃는 경탄의 순간을 맛보게 된다. 이 대리석상은 그 자신 母都市 피렌체의 자유를 위해 고난의 나날을 보내기도 하였던 미켈란젤로가 시청의 위촉에 의해 만든 작품으로서 원래 시청 문앞 광장에 자리한, 이단의 거인 폴리아데를 물리친 다비드는 자유의 상징으로서 시민의 가슴마다에 새겨졌다. 휴머니스트의 교양은 귀족적 閑暇와 심미주의와 근친 관계에 있음이 틀림없으나 그러나 그 시민성은 또한 "르네상스는 亡命者들의 심성에서 탄생되었다."고까지 일컬어질 만큼 정치 개혁의 의지를 지녔다. 사실 적지않은 휴머니스트들이 스스로를 전제군주의 적으로서 공언하였으며 단테는 당시의 많은 망명자들의 지도자였으며 그의 정치적 인문주의는 훗날 17세기 프랑스의 자유사상가(libertin)들에 의해 이어질 것이다.

그런데 정치적 인문주의는 원

래 휴머니스트들의 시민의식 내지 公人 의식에서 연유된 것이었다.

그 자신이 휴머니스트인 브루니는 단테의 전기에서 그를 이상적 인간으로 묘사하면서 "(단테는) 학문 연구를 위해 홀로 들어 앉거나 세상으로부터 유리되는 일이 없었다.··· 위대하고 고귀한 정신은 그러한 제한을 조금도 필요로 하지 않는다."고 서술하고 있다.

또 한 사람의 인문주의자인 구이찰디니는 "피렌체에서는 적어도 한 차례는 관청 근무를 하지 않으면 으젓한 사람으로서 대접받지 못한다."라고 말하였거니와 저명한 휴머니스트인 브라치리오니는 또한 고귀한 인물의 전제 조건으로서 '富와 가문과 더불어 '공직에 종사한 기록'을 든다. 동서와 고금을 가리지 않고 학식은 대체로 신분 상승에 이어지거니와 휴머니스트에 있어, 가문이나 혈통보다도 개인의 역량과 결부되는 공직은 그들의 학식과 교양의 재능을 발휘하고 또 그것이 지향하는 이상을 실현할 수 있는 최고의 영역으로 여겨졌다.

사실 많은 르네상스 휴머니스트들이 공직자였으며 그들 중에는 도시 공화국의 재상이 된 자도 몇몇 있다. 그런데 그들의 공직 지향은 그들 학예의 본질과도 깊이 관련된다. 휴머니스트

의 데다수는 법학자로부터 출발하였다. 여러 갈래로 갈려진 그들의 지적 행로는 다스리의 지식이요 공공의 열린 세계의 학문인 법학을 배우는 것으로부터 시작되었던 것이다. 케트라르카는 로마법을 ‘완벽한 로마적 고대의 권위’라고 말하였거니와 14, 15세기의 학에 부흥은 12세기 볼로냐에서의 로마법의 부활이라는 선구적 업적에 의해 비로소 기약될 수 있었던 것이며 그 법학자들의 서클에서 신성한 교회의 학문에 대항하는 세속의 공적인 학문, 즉 고전 연구가 처음으로 일어났던 것이다.

자기의 교양과 그 교양 이상을 공공의 세계에서 실현하고자 한 이들 휴머니스트들은 많은 점에 있어서 우리의 전통적 유교사회의 士大夫와 비슷하였다고 할 것이다. 우리의 사대부는 四書五經에 관한 고전적 학식과 더불어 시인·문장가로서 文人이요 교양인이었다. 그런데 그들은 또 과거 시험을 통해 仕官하였다. 士는 ‘선비’를 의미하는 한편 ‘벼슬’을 의미하기도 한다. 文人=교양인으로서 선비는 文房四友를 비롯하여 서화·골동·茶器 그리고 庭石을 벗삼으며 幽·閑·淸·雅라는 德의 세계를 지향한다. 문인 취미는 그 가치관에 그대로 이어지니 그들은 단순한 학식자이기보다도 교양

인이요. 아무리 多才多藝하더라도 그들에게는 전문가 의식은 없다. 그리하여 ‘隱逸’이라는 그들의 품성도 특정한 ‘業’을 지나지 않음을 말할 뿐이다. 仕官은 업이기보다도 오히려 그 교양이 지향하는 禮의 질서를 현실에 구현하기 위한 正道가 아니었던가. 단순한 학식이 아닌 인격화된 교양이 유교 사회의 선비들에 있어 身分을 높이는 護符였듯이 교양이야말로 휴머니스트들을 ‘고귀하게’ 만드는 가장 좋은 酵母였다. 공직을 추구한 그들은 마땅히 또한 富를 바랬다.

지난날 그리스도교 세계에서 관행처럼 여겼던 ‘無價의’ 문필 활동이라는 관념은 최초의 근대적 문필가였던 휴머니스트들에 의해 깨졌다. 부의 추구에 윤리적 의미를 부여한 점에서 그들은 프로테스탄티즘의 선구를 이루었다. 휴머니스트인 레온 알베르티는 사람은 “자기의 집과 재산 그리고 일터를 소유하여야 한다.”고 말하고 가정이란 “건물을 당당하게 장식하고 아름다운 서적을 수집하고 훌륭한 말(馬)을 지녀야 한다.”고 하였거니와 휴머니스트들은 부유하고 귀족적인 社交人이 되고자 하였다. 르네상스 시대 그림 속의 휴머니스트는 서적도 펜도 안경도 지니지 않는, 미소짓는 俗人이다. 학교의 학문인 스콜라학을 ‘최대의 公的 災禍’로 여기는 그

들은 서적에 의거한 파리의 교사들과는 판이하게 말의 놀이를 즐겼다. 이 점에 있어서도 그들은 허구한 날 宴席의 對話를 즐겼던 소크라테스나 플라톤의 충실한 후예들이다. 그 후예의 한 사람인 에네아 실비오는 말만큼 세계를 다스리는 것은 없다고 하였다. 말, 특히 典雅한 말로써 그들은 자기들의 주변에 사람들을 모이게 하였다. “학문은 전야한 말 따위는 필요로 하지 않는다.”라고 스콜라학자들은 휴머니스트들을 비난하였었지만, 휴머니스트인 에라스무스는 『癡愚神 에찬』에서 되풀이 하여 스콜라주의적, 학자연한 자들의 추상적인 공리공론을 통렬히 비웃었다.

16세기 최고의 교양인으로서 범유럽의 지식사회의 존경을 한몸에 받아온 이 ‘보편의 교사’는 종교개혁이 불을 당긴, 어찌면 유럽 사상 최초라고 할 이데올로기의 시대에 있어 “나는 누구에게도 속하지 않는다.” “나는 어느 당파에도 속하지 않는다.”라고 공언하며, 宗派的 전란의 세계에서 순수관객임을 자인하였다. 모든 대학이 종파에 의해 세워지고, 그럼으로써 교수와 학생이 신앙고백을 강요 당한 시대에 이 교양인의 학에에 대한 사랑은 당파와 이데올로기적인 증오로부터 그를 자유롭게 하였던 것이다.

종교적 분열과 戰亂의 초연 자육이 가지자, 다시 교양인의 시대가 찾아들었으니 그것은 매 마침 태동된 宮廷社會를 배경으로 귀족적 성격이 짙었으니 '오네돔'(honnête homme)이 새 교양인의 이상이 되었다.

“순수한 서적의 학식”을 ‘거짓 학문’으로 단죄한 “품위 있고 유능한 사람”과의 친교를 무엇보다도 바랬던 몽태뉴는 ‘오네돔’, 즉 社交人을 가리켜 모든 것을 ‘검비한 사람’이라고 하였다. 로코코풍의 이 세 교양인은 살롱(Salon)에서 그리고 살롱이 낳은 아카데미에서 형성되었으니 14, 15세기에서부터 17세기까지 이르는 유럽의 교양 문화의 시대에서 대학과 대학 학문은 이렇다할 역할을 조금도 다하지 못하였던 것이다.

3. 대학의 국가 -종파에의 예속

르네상스 휴머니즘의 태동은 스콜라주의적 중세 대학의 침체 현상과 靑리를 이루었거니와 이미 14세기에 접어들면서 중세 대학은 격심한 변질을 겪게 되었으니 그 모습을 파리 대학을 중심으로 살펴보자.

백년전쟁(1337~)과 교회대 분열(1378~1417)은 영국계와

독일계의 학생과 교사들을 본국으로 돌아가게 하는 異變을 낳았으니 그 결과 파리 대학은 프랑스인 중심의 학교가 되어 버렸다. 그 뒤 파리 대학은 프랑스 교회의 국민적 교회회의 및 삼부회에 대표를 보내는 한편 아비뇰의 프랑스 교황으로부터도 비호를 받는 등 점차 로마로부터의 국가교회의 독립, 즉 갈리가니즘의 제창자가 되었다. 지난날 파리 대학의 위신은 범유럽적이었다. 그 위신의 원천은 전 그리스도 ‘교회의 제일의 학교’로서 국가권력으로부터 자유로운 세계성과 그에 뒷받침된 自治權에 존재하였다. 그러나 이제 파리 대학은 왕정 및 프랑스 교회와 손을 잡음으로써 국가의 대학이 되고 마침내 대학 자치의 상징인 재판상의 특권도 박탈당하고 고등법원에 종속되기에 이른다. 이미 샤를 5세(1364~80)는 파리 대학을 ‘프랑스왕의 長女’라고 불렀다. 파리 대학에 이어 나타난 유럽 대학의 국민화-지방화는 종교개혁과 더불어 급속히 이루어졌다. 이 문제에 관해서는 뒤에서 언급하기로 하고 먼저 각국 대학에서의 르네상스 휴머니즘의 수용에 관해 생각해 보자.

먼저 프랑스의 경우, 르네상스의 새 물결은 궁정을 중심으로 확산되어 화려하고 세련된 궁정=귀족문화가 꽃피는 토양

을 조성하였다. 그리고 그 궁정적 르네상스의 패턴인 프랑소와 1세는 1536년 휴머니스트인 부데(Budé)의 진언을 받아들여 오늘날 프랑스 컬리지(Collège de France)로서 명성이 높은 프랑스 왕실 자유學寮를 창설하였다.

라틴·그리스·헤브류어와 수학의 학습과 연구를 표방하여 파리 대학의 한복판에 세워진 이 컬리지는 신학자들에 대한 왕의 혐오의 소산이었거니와 그것은 또한 프랑스 지성사의 하나의 사건으로서 기록된다고 할 것이다. 컬리지의 교수들은 대개가 프로테스탄트로 개종한 저명한 인문주의자들이었다. 인문주의의 신포는 고전 문예와 문헌학이 논리학의 자리를 위협하는 한편, 특히 인간과 삶에 이르는 지식과 학에 그리고 박식에의 정열을 불러 일으켰다. 프랑스 르네상스를 대표하는 라블레[Rablais(1494년경~1553년경)]는 작가이며 인문학자요, 의사이자 법률가이며 고고학자이면서 신학자이기도 하고 그리고 해부 실험도 한 知的 巨人이었다. 자유분방하게 삶의 기쁨을 만끽한 이 자유인은 이상적 인간상을 다음과 같은 품성에서 찾았다. “좋은 핏줄을 이어받고 충분한 교양을 갖춘, 마음씨가 우아하며 사람들과 더불어 화목한 자유인은 태어나면서 어떤

본능과 충동을 갖추고 있어... 이러한 사람들은 그 본래의 모습을 품위라고 부른다.” 라블레는 벌써 오네통의 출현을 告知하고 있는 것이다.

영국의 옥스-브리지는 인문주의에 대해 적극적인은 아니었으나 비교적 관대하였다. 그러한 배경에는 옥스-브리지가 파리 대학의 영향력에서, 다시 말하여 신학 중심의 학풍에서 벗어나 점차 귀족 자제들을 위한 교양교육에 치중하게 되는 변화와 관련된다.

특히 귀족 가문 출신이 태반을 차지한 법학 학생들은 이탈리아의 볼로냐와 피두바에 유학하여 이탈리아 르네상스를 체험하고 돌아 왔으며, 1448년에 옥스퍼드에 새로 세워진 몬트리안 컬리지에서 그리스어 강좌가 개설된 이래 인문주의적 교양교육은 옥스-브리지의 전통이 되었으니 그것은 학생의 약 반을 차지하는 귀족 출신의 교양교육에 대한 요망에 부응하는 것임은 물론이다.

독일에서 르네상스 문화는 도시나 궁정, 귀족사회를 중심으로 뿌리를 내린 이탈리아, 프랑스 및 영국과는 달리 대학과 학식자를 대상으로 전파되었다.

고전의 학예에 대해 깊은 관심을 지녔던 팔츠伯에 의해 문예와 수사학 교수로서 하이델베르크 대학에 초빙된 방랑시인

루다는 1456년 ‘인문주의 교육’이라는 취임 연설을 한 2년 뒤에 신학자들에 의해 대학에서 추방되었다. 루다에 대해 처음부터 적대적이었던 신학부 교수들은 학위가 없는 자는 강의할 수 없다는 이유를 내세워 군주의 비호까지도 물리쳤던 것이다. 그만큼 신학부의 지위는 대단하였다. 그 뒤 빈 대학에도 고전학 강좌가 개설되고 그리고 문예컬리지도 생겨났으나 모든 직업이 성직자들에게 독점된 당시의 실정으로 인하여 학생들이 모이지 않았다. 당시 6백 명 학생 중 문예컬리지의 학생수는 12명에 지나지 않았다. 프랑스나 영국에서처럼 궁정적 귀족적인 문화운동으로서가 아니라 문헌학으로서 대학에 뿌리를 내린 인문주의는 종교개혁의 모국에 있어서는 신학과의 유대를 통해 이른바 그리스도교적 인문주의로서 둔갑되었다. 이러한 현상에 관해 에라스무스는 다음과 같이 말하고 있다. “(인문주의적) 諸學은 (독일에서) 신학의 품위를 떨어뜨리는 것이 아니라 높이는 것이며 그에 대립하는 것이 아니라 그에 봉사하는 것이다”.

이상에서 보았듯이 르네상스 운동과 인문주의는 독일을 제외하면 대체로 대학 밖에서 비대학인에 의해 주도되었을 뿐만 아니라 사변적 스킨라학의 아성

인 대학과 대학 학문에 의식적으로 항거하면서 전개되었으며 대학은 중세적 遺制와 이념에 고집하여 르네상스의 세기 속에서 크게 변화를 체험하지 않았다. 대학 변혁은 오히려 종교개혁과 절대주의 체제에 의해, 그것도 바람직하지 못한 방향에서 추진되었다.

영국의 옥스-브리지는 1520년 루터의 종교개혁에 호응하였다. 그러나 다음 해 캔터베리 대주교는 루터의 저서를 금서로서 공포하고 불살랐다. 헨리 8세의 首長승은 대학에 대한 교회의 지배에 중지부를 찍는 대신 대학을 왕권에 예속시키는 결과를 낳았으며 찰스 2세의 통일령은 교수의 약 5분의 1을 ‘불복종’이라는 죄명을 씌워 대학으로부터 몰아냈다. 통일령은 교수에 대해 국왕과 영국교회에 대한 ‘충성 선서’를 강요하였던 것이다. 옥스퍼드가 먼저 ‘국왕의 대학’이 되었다. 그런데 이러한 사태 발생에도 불구하고 대학과 교수단은 국왕에 대해 우호적이었으니 그만큼 대학의 자유 혹은 학문의 자유라는 관념이 존재하지 않았던 것이다. 그뿐만 아니라 옥스퍼드는 “그릇되고 선동적이며 불경한” 홉스의 사회계약설에 대한 탄핵을 공포하였다. 그러나 왕과 대학의 밀월 관계는 제임스 2세(1437~60)에 의해 깨졌다. 왕이 자격이 있

는 인물을 컨리지의 長으로 임명코자 한 데 대해 교수단이 거부하였던 것이다.

근대적 시민사회가 가장 먼저 출현한 영국에서 시민적 자유주의 사상은 16세기말부터 이미 태동되어 폭넓은 지식사회의 성립과 더불어 시민적 公衆의 여론(public opinion)이 뿌리를 내렸다. 그리고 그 모든 것을 가능케 한 것은 대학교육의 발전이 낳은 지식인의 양산이었다. 17세기말에 이르러서는 17세 젊은이의 약 2.5%가 고등교육을 받아 영국은 당시 세계 제일의 학력사회를 자랑하였다. 사회의 발전은 “많은 계층이 충분한 교육을” 받음으로써 가능하리라는 신념이 뿌리를 내렸으나 “혁명의 핵심은 대학이다.”라고 말한 홉스에서 짐작되듯이 기대된 계층은 대학교육 속에서 반란의 원천을 또한 보았다. 전문적 계층이 대두되는 한편에서는 권력의 핵심에서 소외된 많은 지식인의 존재도 차차 사회문제로서 부각되었으며 이튼을 비롯한 퍼블릭 스쿨(public school)과 옥스-브리지에서 귀족적 교양주의 교육은 영국 사회를 더욱 더 ‘두 국민’(two nations)으로 계층화하고 차별하는 결과를 초래하였다.

카톨릭의 나라 프랑스의 대학은 당연히 종교개혁을 전적으로 거부하였다. 이미 14세기에 국

민적 성격을 높였다고는 하나 파리 대학은 로마교황과 프랑스 국왕 간의 조정자로서의 역할을 통해 국가와 교회에 대해 그런 대로 고도의 자주성을 손에 넣고 있었다. 그리고 소르본느는 오랜 전통에 힘입어 갈리가니즘(프랑스 카톨릭교회의 독립주의)의 아성으로서 위신을 유지하고 있었다. 그러나 대학의 자주 되풀이된 정치적 간여는 결국 그 몰락을 자초하게 마련이었으니 갈리가니즘과 예수회를 앞세운 울트라몬타니즘(교황 지상주의)에로의 교수단의 분열이 나타났다. 그 결과 소르본느는 예수회 산하로 넘어 가고 1789년의 혁명이 일어날 때까지 대학을 포함한 각급학교 교육은 사실상 예수회의 교육 독점하에서 정지되고 뒷걸음쳤다.

그간 앙리 4세는 1598년 파리 대학 학칙에서 왕은 ‘연구를 규제할 권리’가 있음을 명기하고 루이 14세는 총장과 교수 선임의 권한을 주장하는 대학의 국가예속화가 진전되었다. 그러나 그러한 상황 속에서도 국가에 대한 파리 대학의 자주성은 무시할 수 없었다. 역대의 국왕이 교황청과의 대결에서 소르본느의 ‘神託’을 이용할 수밖에 없었던 전가보도를 대학은 분에 넘치도록 이용할 수 있었던 것이다.

그런데 대학의 자주성은 그의

중세적 유제와 스텔라적 전통과 표리를 이룬 것으로서, 교양학부(철학부)는 여전히 신학부의 시너의 지위에서 벗어나지 못하였다.

종교개혁 이래 가속된 대학의 국가 의존과 종파성은 독일에 있어서 더욱 더 심각하였다. 종교개혁은 어느 국민에게보다도 독일에서 특히 가혹하게 신앙교백을 강요하였으니 신구 양파에 의한 30년전쟁(1618~48)을 겪으면서 독일은 역사상 유례없는 領邦 분립과 종파적 분열상을 드러내었다. 그리하여 영방 군주와 각 종파는 요세를 구축하듯이 앞을 다투어 대학을 세웠다.

17세기말까지 독일에는 36개 대학이 생겨났으며 그 중 신·구 양파가 각각 17개교, 그리고 두 종파를 모두 수용한 대학이 2개교였다. 학생수는 30년전쟁 직후 약 7천 8백 명이었던 것이 1800년에는 5천으로 감소되었다. 이러한 학생수의 감소현상은 관리나 군인이 될 수 있는 기회가 많이 주어진 데 원인이 있다고 하지만 대학의 침체가 보다 크게 작용하였다고 할 것이다.

대학의 침체현상은 당연히 학문 수준의 저하를 야기하였으며 이제 우리들은 당시 교수의 위상에 관해 살펴보자.

4. 교수의 위상

17세기 영국의 지성사에 길이 빛나는 창조적 두뇌 중 대학에 몸을 담았던 인물은 뉴턴과 아담 스미스 정도였다. 그런데 캠브리지 대학의 교수(1669~1703)였던 뉴턴은 아카데미, 즉 왕립협회 회장으로 대학을 떠났으며, 모교인 글래스고 대학의 교수였던 아담 스미스는 “교수직은 나를 게으르게 만든다.”는 말을 남기고 교단을 떠나버렸다. 그의 불후의 명저인 『국부론』도 그가 대학을 떠난 뒤 저술된 것으로 알려진다.

캠브리지는 신학 중심의 옥스퍼드보다는 진보적이라고 하지만, 그리고 그곳에서는 당시 최첨단의 근대 학문인 수학이 장려되고 자연과학과 데카르트에 대한 관심이 높아졌다고도 하나 종교적이며 스콜라적인 영국의 전통적 학풍을 바꾸어 놓지는 못하였다.

옥스-브리지는 학문 연구의 기관이라고보다도 교양교육의 시설이었으며 몇몇 고전어 교수들 제외하면 학자라고 할 만한 인물은 거의 찾기 어려웠다. 교수들은 연구실을 지키지 않을 뿐만 아니라 강의는 학과 시간표에 기재되어 있을 뿐 거의 행

해지지 않았다. 교수들의 태만은 튜터(tutor)들에 의해 배워졌다. 학생의 지도교사격인 튜터는 대개 학생의 학부형에 의해 선발된, 말하자면 어린 학생의 훈육 교사였다. 학생 생활을 옥스퍼드에서 지낸 사학가 기본은 당시를 회상하여 그 학풍을 편협하고 태만하며 압제적이었다고 혹평하고 있다. 옥스퍼드에만도 1571년 당시 총 17개의 컬리지가 있었거니와 그 학풍은 수도원 양식의 건물 그대로 중세풍이 지배적이었다.

소르본느가 군림한 프랑스의 대학에서도 데카르트는 한때 학습되었다. 그러나 칼빈 신학자와 아리스토텔레스의 신봉자들에 의해 그 금지가 공포되었다. 그리고 교회법만의 학습에 머물렀던 법학부의 경우 1678년 이후 로마법, 프랑스법이 받아들여졌다고는 하나 그것도 자연법과는 무관하였다. 그리고 의학부는 자연과학의 영향을 계속 거부하였다.

학문의 침체와 저하 현상은 군소 領邦의 분립과 종파적 갈등이 격심하였던 독일에서 더욱 심하였다. 대학의 재정적 궁핍은 교과나 강좌 및 교수방법을 구태의연하게 방치하였을 뿐만 아니라 한 교수가 많은 부문을 담당하여 교수와 연구의 전문성이란 찾을 수 없었다. 그리고 학부 사이를 왔다갔다하며 전혀

다른 학과를 강의하는 교수도 적지않았다. 그리고 대학 밖의 르네상스 휴머니스트들에 의해 수준이 높아진 고전 연구에도 아랑곳없이 학예학부의 학습은 지난날과 다름이 없는 초보적 수준으로서 김나지움과 구별지을 수 없었다.

교수들의 낮은 학문적 수준은 그들의 사람됨과도 깊이 관련되었다. 그들은 학자적 자질이 결여되었을 뿐만 아니라 강의에 태만하고 무성의하였다. 많은 교수들이 무미진조한 강의를 따분하게 행하였다. 한 역사학 교수는 독일사 강의에서 학기말에 겨우 칼 大帝의 시대에 이르렀는가 하면 그의 동료의 세계사 강의는 12년간에 걸쳐서 겨우 9세기에 도달하는 형편이었다. 그런가 하면 어느 교수는 황제 레오폴트, 요셉 1세, 칸 3세에 관해 단 1시간 강의로써 끝마치기도 하였다.

16세기 이래 귀족 출신의 학생이 독일에서도 많이 대학에 찾아들었다. 신분제 사회를 반영하여 그들은 교수보다도 대학에서 우대받았다. 그리고 이탈리아와 프랑스풍의 모드를 흉내낸 그들로 인해 학내에 사치와 방종의 기풍이 조장되었다. 학생들은 즐겨 귀족의 복장을 하고 군복을 걸치고 同鄉人會를 조직하고 세인들의 반축을 사는 신입생 학대(pennalis mus)나

결투를 즐겼다. 교수들에 대한 학생들의 행태도 다반사였다. 1774년 한 제후는 다음과 같은 포고문을 시달하였다.

“대학의 젊은이들의 퇴폐와 방종의 참된 원인은 교수들의 행실에 달렸다. … 그러므로 이 점에 미루어 대학교수된 자는 반드시 자기의 체통과 품위를 생각하여 강의 시간을 위해 준 비를 게을리하지 말고 시간에 맞추어 강의하고 학생들과도 진지하게 대해야 할 것이다.”

“경박하고 멧만 부리는” 학생들의 행태도 문제였지만 사실 그에 못지 않게 교수들의 비도덕적 품성도 심상치 않았다. 많은 大學史家들은 거리의 잡상배 못지 않게 탐욕스러웠던 교수들의 스캔들을 우리들에게 들려준다.

16, 17세기에 여러 대학에서 때때로 귀족 출신의 학생이 학장으로 선출되었다. (실무는 교수인 부학장이 관장하였다.) 그 사유인즉, 선출 뒤에 베풀어질 호화스러운 향연(물론 그 부담은 귀족 출신의 신입 학장의 몫이었다.)에 대한 교수들의 기대에서였다. 모든 도시와 마을을 거의 황폐하게 한 30년전쟁 뒤의 대학을 둘러싼 궁핍은, “나

의 학교는 그리스도교도의 자체를 위한 교육의 장이라기보다는 마굿간에 가까웠다.”라고 자조 섞인 어조로 말한 어느 제국도시의 교육장의 표현 그대로 극에 달하고 있었다. 많은 대학에서 몇 해 동안 교수들에게 봉급을 지불하지 못하였다. 가난은 특히 생계를 대체로 교사적에 의존할 수밖에 없었던 학예학부 교사에게 특히 심하였으니 그 자리는 존경도 받지 못하는 불안정한, 그러므로 그들은 문자 그대로 지적 포롤레타리아였다.

학예학부의 교수들은 생계를 꾸려나가기 위해 정규 강의보다도 청강료를 받을 수 있는私 강의(collegia private)에 열을 올렸으며 그로 인해 강의를 더욱 소홀히하였다. 그 결과 강의를 둘러싸고 학교와의 사이에 소송 사건이 일어나기도 하였다. 이 문제는 결국 사강의를 공식으로 인정하고 정규 수업으로 하는 것으로 타협을 보았다.

신학부와 법학부 및 의학부 교수들의 사회적 지위나 그 경제적 형편은 학예학부 교수들과는 판이하였다. 신학 교수의 경우, 타학부 교수의 감독이나 주임 사제를 겸한다든지, 때로는 국경에도 간여하여 그 신분에 알맞은 물질적 풍요를 누렸다.

한편, 법학부 교수들은 재판관이나 군주의 고문 변호사로서 그리고 의학부 교수는 신분이 높은 환자의 주치의로서, 양자 다같이 대학 강의를 부업으로 여길 만큼 영달을 누렸다.

끝으로 17~18세기의 이탈리아의 뛰어난 철학자인 비코(Vico)를 통해 당시 교수상의 일단을 살펴보자.

가난한 서적상의 집안에서 태어난 비코는 거의 독학으로 배움의 길에 들어서 나폴리 대학의 수사학 교수가 되었다. 당시에는 그와 마찬가지로 독학으로 교수가 되는 경우도 그리고 18세 정도의 나이로 교수가 되는 경우도 적지 않았다. 그런데 비코는 로마법 연구에도 노력하여 로마시민법의 교수 자리가 비었을 때에는 그의 후임 인사에 응모하였다. 당시 수사학 교수와 법학 교수의 연봉은 6배 차이가 있었다고 한다. 법학 교수는 못되었으나 그는 그의 교수직을 아들에게 물려주고 은퇴하는 데는 성공하였다. 당시 교수직은 아들·손자로 세습적으로 인계할 수 있는 특권(?)이 교수들에게 있었던 것이다. 이제 우리들은 아카데미에 관해 생각해 보자. ▣

(이 주제는 다음 호에 이어짐)